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국제관개배수집행위원회의 참가기

윤 석 군

(ysg972@hanmail.net)

전남본부 사업계획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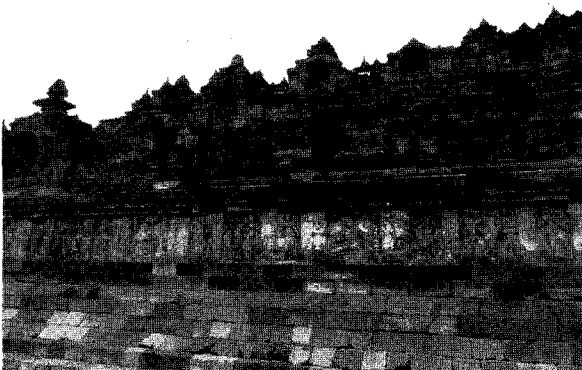
2010년 10월 9일 61차 IECM 및 제6차 ICID 아시아 지역회의(ARC)에 참석차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을 이용하여 자카르타를 경유하여 족자카르타로 향하는 일정이었다.

약 7시간 정도의 여행 끝에 시차가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늦은 오후 4시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수카르노 하타 공항에 도착하였다. 자카르타의 오후는 맑고 화창했으나 30°를 넘는 무더운 날씨였으며 약 2시간의 기다림 후에 국내선을 이용하여 족자카르타로

출발하였다. Sheraton Mustika 호텔에 도착한 일행은 무려 1시간이 넘는 Check in 수속을 받고 입실 후 열대의 첫날밤을 보냈다.

10월 10일 일요일 아침식사 후 9시부터 ICID 등록 후 내일부터 있을 회의 참석 일정 및 자료를 체크하고 저녁 6시부터 있을 Staff 회의 및 준비회의 참석까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보로부드르 사원을 관람하기로 하였다.

중부자바에 위치하며 족자(Jogja 또는 Yogya)로



Borobudur



Gunung Merapi

블리어지는 족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경주처럼 문화유산과 유물이 많은 옛 도시이지만 교육 도시로서 더 이름난 곳이고, 인구의 대부분은 Sumatra, Sulawesi, Irian jaya 등 다른 섬으로부터 대학을 다니기 위해 온 학생들이다. UGM(Universitas Gaja Mada)은 국립 대학으로 전통과 문화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장 좋은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느 도로에서든지 볼 수 있는 긴 행렬의 오토바이는 이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며, 오젝(Ojek)으로 불리는 운전자들은 주로 택시를 대신하여 젊은 직장인과 학생들을 주 고객으로 영업한다. 헬멧은 필수이고 두터운 잠바도 빠지지 않는다.

보로부두르 사원(Borobudur Temple)은 족자에서 서북쪽으로 42km 떨어져 있는 자와탕가주에 위치하고, 벽면에 석가모니의 일대기가 부조로 조각되어 있으며, 이 건조물의 보존운동이 유네스코의 지원하에 활발히 전개되었다.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되어 있다.

보로부두르는 건물 내에 1,460개의 부조와 504개의 부처상이 있으며 약 100만개의 돌덩이를 이용해 쌓아 올린 9층 사원이다. 그러나 대부분 부처들은 목이 떨어져 나가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제일 꼭대기에는 커다란 종 모양의 탑(Stupa)들이 있는데,

그 안에 불상을 만지면 행복이 온다고 하여 우리도 손을 넣어 시도해 보았다.

점심 후 돌아가는 길에 족자의 북쪽에 있는 머라피 화산 근처의 고지대에 위치한 마을을 둘러보았다. 머라피 화산은 자바주에 있는 해발 2,968m의 활화산이다. 1548년 이래로 68차례 분화했고, 1930년의 분화 때에는 약 1,300명이 사망했고, 1994년의 분화 때는 60명이 화산 폭발에 희생되었다. 차에서 내려 조금 걸자 분출된 용암이 흘러내린 골짜기의 하단부에 파묻힌 마을이 있었다. 그때 분출의 규모를 실감나게 만들었으며 그곳을 경계로 아직 푸른 숲과 흙무더기가 구분되어 있었다

10월 11일 본격적인 회의 참석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2~3인씩 조를 이루어 계획대로 관개배수역사분과 위원회 (WG-HIST) 환경분과위원회(WG-ENV) 및 아시아지역분과위원회(ASRWG)에 참석하여 환경, 세계기후변화 및 농업용수 투자재원 확보 등에 대하여 기술정보를 교환하였다.

10월 12일, 각국 전시회가 개최되고 세계 기후변화와 농업용수 관리 분과위원회(WG-Climate) 및 홍수관리 분과 등 10개 Working Grup(WG) 및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지구 온난화와 국제적 공헌을 위한 일본의 대책이란 컨퍼런스에서는 농촌개발에 따른 지구온난화 대책과 국제적 기여에 대한 토론



Eruption trace



파묻힌 마을

이었는데 각국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10월13일, 여전히 각 회원국의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농업용수절약(WG-WATS) 및 지속가능연안개발분과(WG-SDTA)등 9개의 WG이 개최되었으며, 저녁엔 인도네시아의 환영 만찬이 The Sultan's Palace에서 열렸는데 이 궁전은 1755년 Pangeran Mangkubumi에 의해 지어졌으며 군주는 Sri Sultan Hamengku Buwono I 세 이다. 정문은 Danapratopo라 불리우며 Gupala라고 하는 두명의 거인상이 지키고 있다. 지금 이 곳은 Sri Sultan Hamengku Buwono X와 그 가족들이 주거하는 곳이다. 아마 환영인사를 한 족자왕족이 그의 동생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곳에서 본 전통무용수와 가불란 음악은 지금도 눈앞에 아른 거린다.

10월 14일은 9시 30분부터 Opening Ceremony가 있었다. 족자 주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오프닝 댄스 "Sesanti Manguyu"가 공연되고 OC의장과 ICID회장의 연설이 진행되었고 11시에 막을 내렸다.

오후엔 특별한 일정이 없어 호텔 주변에 있는 농촌지역을 여행하기로 하였다. 호텔 뒤편의 농촌은 호텔 앞의 도시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시골스럽다. 이곳도 이렇게 유료 낚시터가 있다. 우리 돈 천원정도 지불하고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수질은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깊이

들어갈수록 쓰레기 천지이다. 이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니 홍수 때 강이 막혀 침수되고 악취에 모기에 도통 걸어 다닐 수가 없다. 점심때 먹은 물고기도 여기에서 잡은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공동묘지를 지나 한참을 걸어 농민들이 새참을 먹고 있는 곳에 나도 동참해 보려고 하니, 막 추수작업을 마치고 이제 조금 쉬는 중 이란다. 아직도 원시적인 농기구를 사용하고 3모작이 불규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나라를 볼 때 우리네 60년대의 모습 그대로 인 것 같다. 무려 한 시간동안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 버린 내가 밭지도 않은지 이장님은 다음번엔 자기 집에서 하루 묵어가라는 말과 함께 고구마와 삶은 바나나를 한 묶음 꾸려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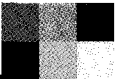
저녁엔 Prambanan Temple에서 송별 만찬이 열렸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힌두사원인 프람바난(Prambanan) 사원은 10세기의 힌두문화의 걸작품이며, 이 날씬한 건물은 아름다운 조각으로 구성된 47m의 탑이다. 이 사원은 첫 번째 마당에 Vishnu, Brahma 그리고 Shiva 라고 이름 지어진 3개의 주탑이 있으며, 이 3개의 탑은 힌두 믿음의 3신(Trimurti)이다. 이 탑들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서쪽을 바라보는 Nandini for Shiva, Angsa to Brahma 그리고 Garuda Vishnu라는 각 각의 부속탑을 갖고 있다. Borobudur가 크고 웅장하다면 Prambanan은



Opening Ceremony



Topeng Ireng



규모는 작지만 이름답고 섬세함이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전통무용인 “Topeng Ireng”을 서두로 GWR의장과 ICID회장의 인사말 후에 뷔페식 만찬이 있었다. ‘Sendratari Ramayana’라는 공연이 이어지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 견줄만한 고시대의 거대한 사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마치 그 시대로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10월 15일은 제61차 집행위원회 및 아시아 지역회의 9시부터 하루 종일 열렸고 오후부터 아시아 지역회의의(ARC) Technical Session(3&4)에서 우리공사 유영진 차장님이 Water Quality Preservation Measures Hwasung Lake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내일 귀국인 지라 지인들에게 줄 지극히 인도네시아적인 조그만 선물(Oleh Oleh)을 구입하기 위해 저녁엔 시내에 있는 Malioboro거리를 가 보았다. 2km거리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는 말리오보로 거리는 자바인의 중심거리이자 은행, 호텔, 쇼핑몰 등 이 자리 잡고 있는 족자의 중심이다. 거리에는 안동(Andong)이라는 전통마차와 벵짜(Becak)이라는 인력거가 있으며, 전통공예품과 바틱 가게가 수없이 널려있었다.

10월16일은 제6차 아시아 지역회의가 열리고 오후 3시경 모든 회의와 미팅이 끝나고 다음 이란회의에서

만남을 기약하였다.

우리 일행은 오후 7시에 족자를 출발 자카르타를 경유하여 자정이 되어서야 서울로 향했다. 그러나 귀국 후 일주일 뒤인 10월 26일 족자의 Merapi 화산이 또 폭발하여 수천 명이 대피하였고 그 후 10여일간 매일 계속 폭발하여 가스와 화산재를 날리고 회색비를 내리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곳 사람들과 특히 비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내해준 Anggi 와 Agy에게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출발부터 귀국까지 내내 단원의 안전을 위해 애써 주신 윤병순 대표단장님과 열정으로 기술분과회의 및 Workshop에 참여하신 김태철, 최종대, 노재경 교수님과 2014년 총회 서울개최를 위해 1시간도 쉴 틈 없이 수고하신 KCID 전임이사 조진훈 박사님, 엄명철 차장님, KCID 이훈선 사무국장님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단체회원사 박상현이사님과 이석우, 이정엽님,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김동권 서기관님과 우리공사 김현태 지사장님과 심재록, 남우 팀장님, 유영진 차장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Threshing



Member of participation